

## 山林副産物

### 業界懇談會

지난 12월 9일 山林정회의실에서 鄭塚鎮산림청장과 次長을 비롯한 각국장 부·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물업계의 간담회에는 石材界, 밤生産者, 山林組合, 표고生産者등 24명이 참석하였는데 각업계가 겪고있는 제반에로사항을 기탄없이 진지하게 토론. 흥금을 터고 화기가득한 분위기 속에 계속된 보기도문 이 간담회에서 특히 石材업계가 겪고있는 훼손복구비의 기준, 자금지원문제, 명확한제도장치, 국제경쟁에 이겨갈수 있는 법적보호책등을 요망. 그러나 늦게나마 石材法이 마련된다는 점에 크게 自慰하면서 당국의 비상한 지원책수립을 크게 期待.

이날 밤生産者인 權榮福씨(경남)는 81년이후에 와서 처음으로 밤값이 쌀값보다 kg當 59원정도 가격이 높았는데 이는 '86배라號태풍피해로 밤농사가 작살이 났기에 최소가치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일뿐 큰피해를 입었는데 당국의 자료는 160원가량 쌀값을 앞선것같이 되어있다면서 이런것을 보고 돈많이 벌었다고 줄릴까봐 걱정이라고 한마디.

25년동안 표고버섯을 栽培했다는 표고生産者 金在夏씨(全北)는 최근에 와서 種菌이 날이갈수록 후퇴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山林聯中央會중균연구소를 대대적으로 보장하든지 아니면 선의의중균생산업자들 경쟁육성시켜 우량종균을 다양하게 보급하라고 一針. 그는 84년중균과동을 예를 들면서 종균이 다양해야 만이 年中出荷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현 9종생산하는 종균의 種을 5종으로 까내리겠다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몇배의 투자로서 다양한 중균생산을 하도록 정책을 수립할것을 간곡히 건의.

회의후 木質의 粗飼料化연구 狀況과 부산물연구상황시찰(밤, 버섯, 石材연구실)과 수립원·산림박물관시찰도 있었는데 모두가 감탄.

이날 참석한 분은 다음과 같다. (경칭략)·無順

△金俊敬(수출석재생산조합이사장) △李琪燮(同仁석재) △金寬洙(三益석재) △吳原煥(培旺석재) △黃寅浩(大然석재) △河雲鎬(全南밤生産者) △朴鍾善(全南밤生産者) △權榮福(慶南밤生産者) △李長根(慶南밤生産者) △李龜永(襄陽山林組合) △朱錫殷(蔚珍山

林組合=이날 松栢生産수집 共販사업成功事例發表者) △尹柱國(慶北표고生産者) △金在夏(全北표고生産者) △金敦基(忠南표고生産者) △金昌燮(忠北표고生産者) △吳判龍(國立公園協會事務局長) △韓正鎬(全北밤生産者) △李建勳(忠南밤生産者) △權昌壽(忠北밤生産者) △鄭在春(주·範誠石) △鄭重根(韓一石材) △尹權(汎垂代理石) △劉孝永(一信石材) △金永鎭(大洋石材·石製品 工協組理事長)

## 제 2 회 향토사研究會

대우재단주최 제 2 회 향토사연구토론회가 지난 12월 6·7일 대우재단세미나실에서 열렸다. 龍仁향토문화연구회(京畿龍仁)신라문화동호회(慶州)咸平향토문화연구회(全南咸平)등 지방 17개지역 향토사 연구모임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5월경에 갖게될 최초의 향토사전국대회를 위한 준비모임격. 이번 회의는 내년 전국대회주최를 「한국향토사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정했다.

## 빗나간 겨울철 개구리사냥

하천이나 계곡등에 서식하는 개구리는 생태학적으로 내수면 먹이사슬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 양서류로 분류된다. 강원도내 일부주민과 전문적인 개구리잡이꾼이 미처 동면에 들어가지 않은 개구리를 쇠파이프까지동원 수백마리씩 드럼통까지 동원해서 남획하는 판국. 이들은 하천변이나 제방둑을 파헤쳐가며 닦치는대로 잡아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

한마리 백원씩 주막집이나 포장마차등의 술안주로 팔려간다는 개구리잡이를 보다 못한 東海市 三和洞 무릉계곡주변 주민들은 하천변이 자주 훼손되자 주민들 스스로 개구리잡이꾼의 단속에 나섰다.

보신에 좋다는 소문으로 남획하는 개구리에 대해 의학계서는 「특히 맛이 좋다고하는 개구리알에는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알이 있을수 있으므로 안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春城군 新北면 池內리 朴寅用씨(47)는 「몇년후면 개구리씨가 마르겠다... 농사에 리로운 개구리의 보호대책이 아쉽다」고 개탄. 각자연보호단체회원들이 앞장서서 해야할일이 태산.

〈此項 86. 12. 1. 江原日報〉